



물가불안과 마이너스 실질임금 증가율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에 따르면 2011년 5월 우리나라 근원물가*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.

● 5월 우리나라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.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근원물가 상승률 1.7%의 1.6배 수준임.

– OECD 회원국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터키(4.5%), 영국(3.4%), 이스라엘(3.4%), 뉴질랜드(3.3%), 슬로바키아(3.2%), 멕시코(3.1%) 등 6개국임.

● 또한, 5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.1%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.2%보다 0.9%p 높게 나타났으며,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임.

*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이며,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만을 제외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OECD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뿐 아니라 축산물, 수산물, 식품 가격 등을 제외하고 근원물가를 산출함.

■ 한편,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/4분기 우리나라 실질임금** 증가율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
● 2011년 1/4분기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236만 4,074원으로 전년동기인 246만 4,718원보다 4.0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전년동기대비 실질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3/4분기 -0.47% 이후 처음임.

● 실질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명목임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여 실제 임금수준이 감소하였다는 의미이며, 하반기에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이너스 실질임금 증가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.

** 실질임금이란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, 즉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 임금으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함.

(근원물가 상승률 OECD 1.6배 등, 연합뉴스 등, 7/6)